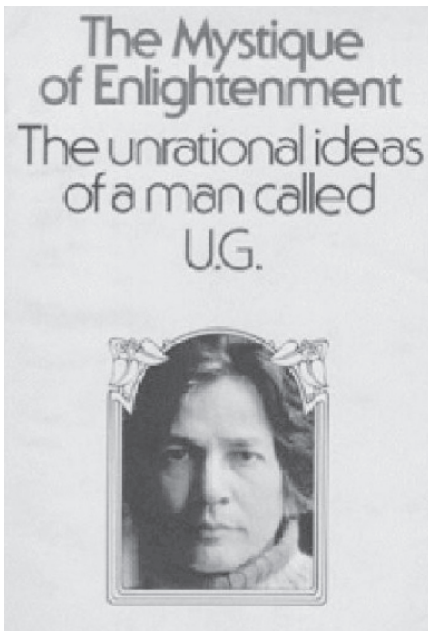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6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나'는 결코 '나'가 사라진 상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경험하려는 노력, '나'를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의식·무의식층에서마저 전적으로 내려 놓아질 때 생애 최초의 평안과 자유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6부)

당신이 이 상태에 들어와도 개성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당신은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하는 컴퓨터 기계에 불과하다. 사실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기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바꾸려 하는 자신의 노력이다. 개성은 변함 없을 것이다. 화가 없어지거나 특별한 성격이 없어지리라 기대하지 말라. 영적인 겸손도 기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오만한 사람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독특한 위치에서 삶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의 시대에 맞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둘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를 깨달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구요!”라며 손 잡고 춤추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요구는 기본적인이다: 음식과 옷과 집이다. 의식주를 위해서 당신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든지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 이뿐이라면 그것을 충족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기본적인 필요를 거부하는 것이 영성의 상징은 아니다. 그러나 의식주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병적인 마음 상태이다.

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까? 그것은 생각에 달려있다. 몸

자체에는 성이 없다. 생식기와 호르몬 균형에서 남녀 차가 있을 뿐이다. “나는 남자이고 저 사람은 여자, 매력적인 여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다. 몸에서 일어나는 성의 느낌을 해석하고 “이것은 성적인 느낌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이다. “그녀를 보기만 하는 것보다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 더 즐거울 거야. 안는 것보다는 키스를 하는 것이 더 즐거워,” 등등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쌓여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은 육체에 엄청나게 폭력적이다. 몸은 본래 매우 평화적인 유기체인데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몸에게 이런 엄청난 긴장과 이완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몸으로서는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성을 억압하든 성을 승화시키든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이런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한, 성에 대한 생각도 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독신 수행 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적인 구도자에게 밤에 여자 꿈을 꾸는지 물어보라. 성적 절정은 직접경험에 가까운 일이다. 나머지 모든 경험은 간접 경험이고 타인의 경험이다. 왜 성에 그토록 많은 금기와 생각을 부여하는가? 왜 성의 즐거움을 파괴하는가? 나는 탐닉이나 난잡한 성행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와 금욕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접촉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방을 나가면 당신은 내 의식에서 사라진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없는지 같은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상이 없다. 상이 생길 여지가 없다. 감각기관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있다. 방

안에 있는 것들과 생생한 접촉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각 활동 자체에만 주의가 있다면, 내일 먹을거리는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걱정이나 신, 진리, 실재에 대한 사색은 할 겨를이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끝없이 답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질문이 멈춰버린 상태다. 그런 질문들은 유기체가 기능하는 방식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이다. 유기체가 기능하는 방식에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여지조차 없다.

육체에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감각이 늘 더없이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이 피곤해지면 육체는 죽음(잠:편집자 주)을 통과한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의 진짜 죽음을 말한다.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길 수 있다. 당신이 그 죽음을 겪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 당신에게 일어난다. 처음에는 마취제를 맞은 듯하다. 감각이 점차 둔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온몸이 송장처럼 딱딱해진다. 몸 전체의 에 지가 어떤 지점으로 흐른다. 그것은 매번 다르게 일어난다. 전체의 과정은 48분 혹은 49분 걸린다. 이 시간 동안 생각의 흐름은 계속된다. 그러나 생각을 보지는 못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시동이 꺼져버린다.’ 생각의 흐름이 끊긴다. 그런 단절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것은 결코 의식적인 존재 혹은 의식적인 생각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름 붙이기가 감각을 해석하는 자를 존재하게 한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빨간 가방,' '의자,' '계단,' '화,' '행복하다' 등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무엇이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순간 당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동 꺼짐'이 끝날 때 생각의 흐름은 정확히 그것이 중단됐던 지점으로 돌아온다. 명함이 끝난다. 명료함이 돌아온다. 몸이 매우 뻣뻣하게 느껴지다가 천천히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츰 풀어진다. 그 움직임은 하타 요가보다는 중국의 태극권에 더 가깝다. 아마도 선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자가 관찰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수백 가지의 자세를 후대에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쓸모 없는 일이다. 그것은 특별한 움직임이다.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그 움직임이 갓 태어난 아기의 동작과 같아 보인다고 말한다. 이런 '시동 꺼짐'이 감각과 내분비선, 신경계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리고 나면 육체는 다시 감수성이 최상인 상태에서 작용한다.

당신은 죽음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이 태어났는가?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다. 당신은 존재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스스로 알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유일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심리적인 죽음은 없다.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할 사건을 결코 생각해낼 수 없다. 당신의 경험 구조는 자신의 소멸에서조차 주도권을 쥐고 싶어한다. 그래서 죽음이 어떨지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직접 느끼려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떠하리라는 그 느낌을 투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래의 경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마음 구조는 참고할 만한 과거의 유사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수 없다. 또 자신의 탄생도 기억해낼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죽은 후 미래에 자신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투사할 근거도 없다. 삶을 알고, 자신을 알고 계속 있어왔던 경험으로 당신은 영원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원성의 느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 구조는 죽음 다음에 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한다. 천국, 환생, 윤회 따위가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환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맛보고, 만지고, 내게 보여줄 수 있는가? 당신 안에 하늘나라로 가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 안에 뭐가 있는가? 당신 안에는 두려움 밖에 없다.

당신은 왜 꿈을 꾸는가? 자신의 인식 능력을 드러내는 자아 혹은 누군가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해석하며 눈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못 생겼네, 나는 이것을 볼 거야, 나는 저것을 볼 테야”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와 같이 통제할 수 없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고, 녹음기는 계속 녹음을 하고 있다가, 육체가 휴식을 취할 때나 생각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 하나 재생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어떤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당신은 꿈꾸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잠들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

도덕이 무엇인가? 도덕은 행동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혹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아니고, 증오와 분노, 탐욕, 욕정, 폭력을 근절하는 문제도 아니다. 행위 전후로 의문을 갖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게 하는 당신의 분별력이 문제이다.

삶은 행동이다. 질문 없는 행동이 도덕이다. 행동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삶의 표출을 망치고 있다. 생각의 움직임이 없이 삶이 저절로 행동하게 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자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장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혹은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엇이 당신을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당신은 계속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당신은 영원히든, 이 순간만큼이든 행복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일상의 경험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원한다. 달라지고 싶고 완벽해지고 싶다.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하려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당신에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심어 놓았다.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든 우리는 모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하는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현인이나 성자, 인류의 구세주들이 이룬 궁극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들어왔다. 그렇게 행동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것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생각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 생각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생각은 모두에게 속해 있다. 생각만 있을 뿐인데 당신이 반대 생각과 생각하는 자를 만들어내 모든 생각을 읽어들인다.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내면에 이차적인 생각의 흐름을 창조하고, 당신은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생각의 흐름은 삶의 흐름과 나란히 가지만 삶과 동떨어져 있다. 생각은 결코 삶을 건드릴 수 없다.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인데도 이렇게 고립된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당신 스스로 삶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상태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이 불쌍하고 무기력한 힌두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자행되어온 가장 큰 거짓말 중의 하나다. 몸이 시체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생각이 없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생각에 질식당하지 않는다. 생각이 자연스런 리듬을 탄다. 생각을 읽어들여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없다.

그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본 적 있는가? 영어 문법에서 ‘나’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 주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찾기 힘들다. 지금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런 후 내게 이야기해보라.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당신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는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신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이다. 이것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착각된 분별을 일으키고 이런 분별을 통해 그 ‘나’가 계속된다. 당신의 의식 안에 바로 이 구분하려는 속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단 하나, 연속성이다. 당신이 그 ‘나’를 이해하려 하거나 그 ‘나’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또는 아름답고 대단한 것으로 바꾸고 하는 한, 그 ‘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나’에 대해 아무것도 하려들지 않는다면, ‘나’는 없다.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할까? 나는 더없이 실질적인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대상은 보고 있는 주체와 다르지 않다.” 당신은 이 같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의미 없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가진 도구는 생각이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것을 해석하듯이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멈출 때야 비로소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존재할 것이다. 이해하려 하고 달라지려 하는 당신의 행위, 그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내가 설명하는 존재의 상태다.

저 너머가 존재하는가? 당신이 일상의 것에,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저 너머’ 혹은 ‘영원함’

혹은 ‘신’, ‘진리’, ‘실재’, ‘브라만’, ‘깨달음’ 등을 만들어내고는 그것을 찾는다. 어떤 저 너머도 없을지 모른다. 당신은 저 너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아는 것은 그 무엇이든 이미 들어봤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지식을 투사하고 있다. ‘저 너머’라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창조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지식이 뭐가 됐든, 정확히 그 지식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경험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지식을 견고하게 만든다.

당신이 아는 것은 결코 그 너머일 수 없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그 너머가 아니다. 만약 어떤 저 너머가 있다면, 그곳엔 ‘당신’이라는 움직임이 없다. 이 움직임의 부재가 아마도 그 너머이다. 그러나 그 너머는 당신에 의해 결코 경험될 수 없다. 그것은 그 ‘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경험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려 하는가?

당신은 지금 보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 없어지니까. 그 ‘나’는 당신이 해석을 하는 순간 존재한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붉은 가방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은 해석을 통해 감각을 방해한다. 생각이 왜 방해할 할까? 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물을 보는 순간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가방’이라는 단어다. 아니면 ‘벤치’, ‘난간’, ‘계단’ 혹은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그는 머리가 희네.”라는 식이다. 당신은 늘 스스로에게 이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뭔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 늦겠어”라든지

말이다. 당신은 이 순간 감각이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스스로에게 “저것은 가방이네, 붉은 가방이야”라고 한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 전부이다. ‘가방’이라는 단어는 당신과 그 사물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나’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

생각이 태어날 때마다 당신도 태어난다. 생각이 사라질 때 당신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 ‘나’는 생각이 가게 두지 않는다. 이 ‘나’에게 연속성을 주는 것은 생각이다. 사실 당신 안에는 영원한 실체라는 것도 없고, 생각이나 경험의 온전함도 없다. 당신은 생각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환상이다. 나는 그것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환상이 아니다.

감정은 더 복잡하다. 그러나 결국 같은 과정이다. 화가 났다고, 누군가가 부럽다고, 아니면 성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왜 이야기해야 하는가? 감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내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두고 우울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지복스럽다거나 부럽거나 욕심 난다고 말한다. 이런 이름 붙이기가 감각을 해석하는 자를 존재하게 한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붉은 가방’, ‘의자’, ‘계단’, ‘난간’, ‘전등’, ‘화’, ‘행복하다’, ‘질투가 난다’ 등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당신은 기억 세포를 항상 가동시킴으로서 뇌 세포를 불 요하게 활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에 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이름 붙이기는 당신이 누군가와 혹은 당신 스스로와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자기와 의사소통하고 있다. 왜 이러는가? 큰 소리로 혼잣말하는 미치광이와 당신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당신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순간, 정신과 의사가 따라 온다. 하지만 그 의사도 당신처럼 늘 자신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가방’, ‘붉은 가방’, ‘집착하네’, ‘충동적이네’, ‘외디푸스 콤플렉스야’, ‘탐욕스러워,’ ‘벤치네’, ‘난간이야’ 기타 등등. 그런 다음 그는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도와주려 한다.

왜 감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는가? 왜 해석을 하는가? 스스로와 말하기를 그만두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두려움이다.

화, 지복, 침묵, 행복, 환희, 즐거움, 신 등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넓고 간접적인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지복의 상태에 있다거나 엄청난 침묵의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경험하려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은 놀랍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벤치’, ‘가방’, ‘붉은 가방’이 지식이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입된 것이고, 그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지식을 얻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식이 아니다.

당신 앞에 놓여있는 벤치와 같은 단순한 사물을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경험할 뿐이다. 그런데 그 지식은 늘 사회로부터 왔다. 당신은 사회가 주입해준 생각을 하고, 사회가 축적한 느낌을 느끼고 사회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다. 새로운 경험이란 없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했거나 느꼈던 것은 모조리 당신의

다른 사람이 생각했거나 느꼈던 것은 모조리
당신의 시스템에서 사라져야 한다.
당신도 그 모든 지식의 산물이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다.

시스템에서 사라져야 한다. 당신도 그 모든 지식의 산물이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다.

생각이 무엇인가? 당신은 생각에 대해 전혀 모른다. ‘생각’에 대해 아는 것이란 당신이 들어왔던 것뿐이다.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변형하고, 통제하고, 모양을 새롭게 하고, 멈추려고 하는가? 당신은 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저 생각으로 대체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버리라고 늘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한, 당신은 생각하게 된다.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해하고 싶다는 것은 생각의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 움직임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것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감각이 자연스럽게 않게 작동한다. 왜 뭔가를 얻어야 하는가? ‘나’라는 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계속성을 보호하고 있다. 생각은 보호 메커니즘이다. 다른 어떤 것, 혹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보호한다. 생각에서 태어나는 것은 모두 파괴적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반복적인 생각의 메커니즘이다. 자,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것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질문이다. 나나 다른 사람이 주는 모든 대답은 그런 생각의 움직임에 도리어 힘을 보태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너무 강하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철저하게 무력하며 그 무력함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을 하면, 자동으로 ‘나’가 생겨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계속된다. 정말로 진지하게 명상을 해 봤는가? 아니면 그런 명상을 했던 사람을 아는가? 진지하게 명상을 한다면 당신은 정신병원에서 끝날 것이다. 매 순간 알아차리려 하는 수행을 할 수도 없다. 당신은 깨어있을 수 없다. ‘당신’과 깨어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단 1초라도, 아니면 당신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각성 상태에 가게 되면 그 연속성이 끊어지고, 경험 구조의 환상인 ‘나’가 와해되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들어갈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각성이다.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 ‘나’가 생겨나, 알고 있던 낡은 지식을 재경험하는 것이다.

왜 어떤 이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세포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과를 넘어선다. 당신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다. ‘당신’이 그 상태를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그도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당신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그 상태를

촉발시키는 메커니즘이 몸 안에 내장되어 있다. 생각의 경험 구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육체의 기능이 전적으로 달라지고,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생각의 간섭이 없어진다. 두 손 들고 철저하게 무력해져야 한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당신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는 당신의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연속성에만 관심이 있다. 어쩌면 다른 수준에서 지속되길 원하고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기를 꿈꿀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여전히 계속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이 상태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당신의 모든 것을 없앨 것이다. 더 높은 자아든, 낮은 자아든, 영혼이든, 아트만이든, 의식이든, 잠재의식이든, 그 모든 것을 없앨 것이다. 당신은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한다. 그렇게 사드하나sadhana (종교적인 탐색 혹은 노력)를 시작하게 되면서 “내일이면 이해될 거야.”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이 구조는 시간에 의해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는 않는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내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 당신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작용하는 방식을 당신이 작용하는 방식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쓸데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전달이 필요하지도 않다.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 ‘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질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은 끝나고, 걸어 나갈 것이다. 당신은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이해에 대한 어떤 질문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자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멋진 비전을 가지고 마법에 취한 땅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의 상태는 멋진 말로 마술을 걸어 놓은 것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이다. 당신 스스로가 되는 것은 특별한 지성을 요구한다. 당신은 그 지성으로 축복을 받는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이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자가 자연스러운 사람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체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omepage: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